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엡 03:18-19절)

우리들이 하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사람들에 관한 생애를 읽으며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읽은 책과 성경구절이 나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한 사모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자 사모할 때 사탄의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자 하면 할수록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공격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데 실패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장하며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면 사탄의 집중적인 관심과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방해꾼들이 있으며 유혹과 넘어뜨리려는 함정들이 있고 불화살들이 있습니다. 엡 6:12-13,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체적 인격을 요구하십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빌3:8)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여기에 모든 삶의 능력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거룩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새해 첫 번째 목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온 몸으로 깨달아 가는 새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